



왜 일해야 하는 걸까요?

5. 일하는 동기가 바뀐다

Opening Talk

오프닝 토크



사례 1

A 씨는 중소기업의 CEO다. 늘 직원들과 자신의 비전과 생각을 소통하려 애쓰지만 좀처럼 간격이 좁혀지는 것 같지 않고, 직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 월급날만 기다리고 아무리 잘해줘도 보너스에만 좌지우지 되는 직원들이 탐탁치 않을 때가 많다. 직원들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그들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 과중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가끔 너무나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2

H 씨는 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과장이다. 월급이 안정적이기는 하나 잦은 야근과 과로에 시달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고 에너지가 달리는 듯 하다.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문제는 부하 직원들과 상사들의 요구 속에서 의무는 많고 능력은 별로 없는 자신의 신세가 가끔 측은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3

P 씨는 중소기업 말단 직원이다.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너무나 일이 많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월급을 받아야 하니 일은 해야겠고, 직장을 옮기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봉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교 때의 꿈이나 목표는 잊은 지 오래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Tip. 모든 질문은 한꺼번에 읽고, 각자 원하는 질문에만 답하게 해주세요.
질문은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도구로 생각해주세요.
Biblical Point 나눔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 세 가지의 사례 중 한 가지만 택하거나, 세 가지를 다 논의해도 된다.

- A 씨는, H 씨는, P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Biblical Point

바이블 포인트



이 과에서는 이제부터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동기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창세기 다음으로 출애굽기를 열면 갑자기 거대한 제국인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만나게 된다. 당시 신 왕국 시대에 접어든 이집트는 이미 우리가 관광지에서 접하는 피라미드, �핑크스 등의 많은 고대 문명을 가진,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나라였다.

출애굽기가 흥미를 끄는 점은 ‘일하는 모습’의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일하는 모습’의 이스라엘로 끝난다는 것이다.ⁱ 첫 장부터 이스라엘이 이집트인들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난다(출 40:33).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로부터** 해방시키신 게 아니다. 이스라엘이 **일을 하게끔** 해방을 시키셨다”라고 정리했다.ⁱⁱ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모두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 어떤 동기로 일하고 있었느냐’는 달랐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노예 상태에서의 민족적, 육체적, 정신적, 영적 구원이었을 뿐 아니라 ‘일의 구원’이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위해 일했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노동을 강요했다. 환경은 열악했고, 작업 감독들은 엄하고 무자비했다. 할당량을 맞추지 못하면 매를 때렸다. 바로는 악덕 고용주와 같았다. 백성들은 고통과 근심(출 3:7), 가혹한 노역으로 마음의 상함(출 6:9)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것을 ‘학대’라는 말로 표현한다(출 1:12).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동기로 일하라

그러기에 이집트에서의 탈출은 구속사(구원의 역사)속에서 일에 대한 신선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키셨다.

첫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보스가 생겼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들을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 이것을 일의 영역으로 본다면 새로운 보스가 생긴 것이다. 잔인하고 악한 보스에서 정의롭고 선한 보스로 바뀐 것이다. 그 결과 고통스러운 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바로는 산파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켰다. 남자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거든 죽이라고 명령했다(출 1:16). 산업 현장에서 폐기물을 밤에 강가에 몰래 버리라고 상사가 명령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산파들은 자신들의 일터에서 인간 보스인 바로보다 하나님 보스를 더 두려워하여 목숨을 걸고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용감한 선택을 했다. 그러나 바로에게 정면으로 맞서 불필요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아주 지혜롭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라고 대처하여 바로를 말로 무력화 시켰으며 위기를 모면했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이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보스가 생겼다.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것이다. 부당거래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조금만 눈 감아 주면 이윤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직장에서 내 일도 바쁘는데 다른 직원의 어려움에 더 신경 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현실의 장벽을 하나하나 넘어야 한다. 위의 산파들처럼 인간 보스보다 하나님 보스

에게 더 잘 보이려고 일할 수 있겠는가? 이집트에 남겠는가? 모세를 따라 나서겠는가? 바로를 보스로 모시겠는가? 하나님을 보스로 모시겠는가?

둘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동기와 사명이 생겼다. 모세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동기와 사명이 주어졌다.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나라의 건설이 목표가 되었다. 다른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 나라가 된 것이다.

과거에는 이집트의 국고성의 건설을 해야 생존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성막을 짓는다. 그들의 모습은 바로 밑에서 신음하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백성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렸다(출 35:21-22).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실을 뽑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성령충만한 자들이 성막을 잘 짓기 위해 연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다(출 35:32-34).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여했다(출 35:31).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이 일에 참여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다(출 39:32, 43). 그 결과 성막이 완성되었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출 40:34). 성막은 예배를 위한 단순한 물리적 장소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다(출 25:8).

동일한 동기와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성막을 지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일터에 성막을 지어야 한다.

성막을 짓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나게 일해야 한다.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한다. 잘 짓도록 연구해야 하고 ‘일과 영성’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서로를 격려하는 일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터와 사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일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나야 한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집 짓기에 바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론 크든 적든 어느 정도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자연재해, 정리해고, 부상, 질병, 파산, 부당대우, 계약해지, 법적 제재, 입찰 실패, 경기 불황, 경



협부족, 언어 장벽, 가족 부양 등의 문제 때문에 압박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동기와 사명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을 짓기 위해 각자 가져 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기를 기대하신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칙이 주어졌다. 그것이 율법으로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언급할 때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출 20:9) 라고 말씀하신다. 옛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십계명의 일부다. 그것이 집안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공부이든, 행정이든, 회사근무이든, 장사이든, 물건을 만드는 일이든 ‘힘써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일을 통해 우리의 보스가 세상과 사탄이 아닌 하나님임을 만방에 증명해 보일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므로 쉬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주일 예배는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꾼으로 일했는지 결재 받는 날이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가서 6일 동안 올바른 태도와 동기로서 성과를 잘 내야 한다. 잘했으면 6일 동안 한 일의 칭찬을 받는 것이 주일 예배이기도 하다. 주일은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다른 한 주간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가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사람이라고 하자. 유통기간이 살짝 지나고,

원산지가 확실치 않은 재료들을 싸게 구입해서 생각보다 이익을 많이 남겼다고 하자. 그 음식들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입으로 다 들어갔으며, 우리는 그것에 관계없이 번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십일조로 가져 왔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더러운 돈을 함부로 가져 오지 말라’고 거부하실 것이다. 말라기에서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말 1:7)라고 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노발대발 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에게서 새로운 삶의 원칙들이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신 22:8)라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해서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자칫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난간을 만들지 않아 일어난 사고는 주인 책임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산업 현장과 일터에서 안전 불감증이 낳은 모든 문제들과 무책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의 법칙을 어긴 것이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 이야기

스티븐 C. 런던의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 속 주인공 제인은 남편이 병으로 죽은 후 금융 회사 관리부서에서 일하게 된다. 부서의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느리고 부정적이며 열정을 잃은 상태였다. 변화가 절실했던 제인은 우연히 가게 된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상인들은 큼직한 생선을 확확 던지면서도 서로 웃고 박수를 보내고 춤을 추며 좋아했다.ⁱⁱⁱ

단순히 생선 파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하는 듯 생동감이 넘치는 분위기가 제인에게 충격적이었다. 그곳에 가득한 에너지의 비밀을 알고 싶어진 제인은 한 상인과 대화를 하게 된다. 제인이 자기 부서에 대한 고민을 말하자 그 상인은 원래 자신이 엉망인 인생을 살았는데 이 직장에 들어와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즐겁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어시장의 기업 철학을 소개한다.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일할지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에너지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왕 선택한 일이니 더 즐겁고 생산적



으로 해보자고 구성원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그 기업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로 결정했다. 그것을 ‘그들의 날을 만들어 주기’라고 부르면서 시장에 오는 날이 고객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판매 전략은 경험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는 신조류를 낳았고, 그 결과 그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시장이 되었다.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선 하나를 팔아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동기와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원칙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신다. 당신은 오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생선을 팔고 있는가?

- 위의 글을 읽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 다음 시를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자.



민족 복음화를 위한 환상과 기도

故 김준곤 목사 지음

민족의 가슴마다 피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자아의식이 예수의식으로,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젖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젖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자신은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 학교교실에서 성경이 필수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으로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FWIA BUCKET



FWIA Voice

요약정리



일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보스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스입니다.



그 분은 일터에 성막을 지으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터에서의 새로운 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동기로 날마다 일터에 나가야 합니다. Faith and Work을 통합하려는 멋진 일을 기대하면서!

ⁱ TOW Project, "출애굽기 & 일의 신학" <https://www.theologyofwork.or.kr/ko-old-testament/ko-exodus-and-work>.

ⁱⁱ Ibid.

ⁱⁱⁱ 기독교공보에서 발췌함 (2013.10.02)